

# 清華簡<尹至><尹誥>주해

李妍周\* · 張崇禮\*\*

## <목 차>

1. 머리말
2. 清華簡 <尹至><尹誥>의 내용
3. 清華簡 <尹至>역주
4. 清華簡 <尹誥>역주
5. 맺음말

## 1. 머리말

알려진 바와 같이 청화간(清華大學藏戰國竹簡)에는 《尙書》류 문헌이 다수 들어있다.<sup>1)</sup> 이중 <尹至>와 <尹誥> 두 편은 伊尹과 商湯 간의 대화를 통해 각각 商이 夏를 정벌할 당시의 상황과 이후 나라의 안정을 꾀하는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문헌으로 내용에 있어 <尹誥>가 <尹至>를 이어받고 있으며 두 편 모두 기존 《尙書》 또는 《逸周書》에 없는 문헌이다. 이들 두 문헌은 2010년에 발간된 《清華大學藏戰國竹簡(壹)》에 포함되어 그 내용이 발표되었으며, 이중 <尹至>는 商湯이 夏桀을 칠 당시의 배경이 되는 상황과 商湯이 伊尹의 조력 하에 夏를 멸하는 과정을 간결하면서도 짜임새 있게 기록하고 있고, <尹誥>는 상이 夏를 멸한 후 나라가 아직 불안정한 상황에서 伊尹이 하

\* 강원대학교 중문과 교수

\*\* 中國 齊南大學 出土文獻與古代文學研究中心 教授

1) 이연주·張崇禮(2014)에서 정리해 소개한 바 있다.

는 간언과 商湯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나라의 안정을 이루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두 문헌은 기존 《尙書》의 유관 편들과 마찬가지로 내용에 있어 다분히 유가적인 서사구조와 하늘이 나타내는 징조와 人事가 긴밀히 연계된다고 보는 고대 이래의 사고를 보여주는 등 공통점도 많지만 이들 문헌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서사에 미화나 꾸밈이 적고 보다 사실적인 묘사가 두드러지며, 이런 면에서 今本《尙書·商書》의 商湯과 伊尹에 관련된 제 편들과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인다. 본고에서는 이들 두 문헌의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고 각 편の内容을 주해하고자 한다.

## 2. 淸華簡 <尹至> <尹誥>의 내용

淸華簡 <尹至>는 湯이 夏를 멸망시키는 시점을, <尹誥>는 夏를 멸망시킨 직후 불안정한 商나라 정국을 배경으로 한다.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이들 죽간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尹至>는 5개의 簡, <尹誥>는 4개의 簡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두 손상이 적고 簡背에 순서를 나타내는 번호가 적혀있다. 또 양편 모두 편제가 없다. 따라서 이들 두 편의 제목은 淸華簡 정리자들이 부여하였다. 이 과정에서 <尹至>는 죽간 앞 머리의 '惟尹自夏徂亳, 遂至在湯'이라는 구절에 바탕해 제목을 붙였으며, <尹誥>는 《禮記·緇衣》, 郭店簡, 上博簡 <緇衣>에서 <尹誥>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한 것에 근거하여 제목을 확정하였다.<sup>2)</sup> 《史記·殷本紀》에 "당시 夏나라의 桀王이 황음무도하여 포악한 정치를 행하여 제후국인 昆吾氏가 반란을 일으켰다. …… 桀이 有娥氏의 옛 땅에서 商湯과 싸워 패하고 鳴條로 달아나자 夏나라 군사들은 뿔뿔이 흩어져 무너졌다. …… 伊尹이 제후들을 향해 夏나라를 정벌한 공적을 공포했다. 이로써 제후들은 모두 湯의 명을 받들어 귀의했다. 商湯이 천자의 자리에

2) 이상 《淸華大學藏戰國竹簡(壹)》(2010)을 참고함.

올라 천하를 안정시켰다. …… 湯은 夏의 政令을 폐지하고 亳으로 돌아와서 <湯誥>를 지어 제후들에게 경계의 말을 고했다. 伊尹이 <咸有一德>을 지었고, 咎單은 <明居>를 지었다.”<sup>3)</sup>라고 했는데, <尹至>와 <尹誥>는 이 시기의 이야기이다. 清華簡 정리자들은 清華簡 <尹誥>를 《禮記·緇衣》와 郭店簡, 上博簡 <緇衣>에서 인용한 <尹誥>의 진본으로 추정했고<sup>4)</sup>, 이 <尹誥>와 고문《尚書·咸有一德》을 동일 편으로 보았다.<sup>5)</sup>

각 편의 내용을 살펴보면, <尹至>의 경우 伊尹이 亳에 도착해 夏에서 오면서 정당한 夏의 사정을 湯에게 보고하는데, 夏桀이 심지를 상실하고 총희만을 아껴 그의 族人들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걱정하지 않는가 하면 나라의 상벌의 시행이 혼란스럽고 典章과 法도가 준수되지 않는 등 왕이 왕으로서의 덕을 잃고 나라를 올바로 다스리지 못해 백성들이 이반하고 원망, 저주하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이야기해(其有后厥志其喪. 寵二玉, 弗虞其有衆. 民允曰: ‘余及汝偕亡.’ 惟載虐德, 暴動無典) 夏의 정벌을 정당화한다.<sup>6)</sup> 동시에 夏나라에 길흉을

3) 《史記·殷本紀》: 當是時, 夏桀爲虐政淫荒, 而諸侯昆吾氏爲亂. …… 桀敗於有娥之虛, 桀奔於鳴條, 夏師敗績. …… 伊尹報, 於是諸侯畢服, 湯乃踐天子位, 平定海內. 湯歸至於泰卷陶, 中壘作誥. 既紂夏命, 還亳, 作湯誥: …… 以令諸侯. 伊尹作咸有一德, 咎單作明居.

4) 李學勤(2011) p.106. 이는 첫째, 《禮記·緇衣》에 인용된 <尹誥> 구절(10장: 尹吉(誥)曰, 惟尹躬及湯咸有壹德. 16장: 尹吉(誥)曰, 惟尹躬天見於西邑夏, 自周有終, 相亦惟終)에서 ‘自周有終, 相亦惟終’을 뺀 나머지 구절이 清華簡 <尹誥>의 첫 머리에 나온다는 점, 둘째, 清華簡 <尹誥>의 내용이 앞에서 인용한 《史記·殷本紀》의 기록과 기본적으로 일치한다는 점, 그리고 《禮記·緇衣》 鄭玄 注에서, (<尹吉> 曰에 대해) “吉은 마땅히 ‘告’이어야 한다. ‘告’는 古文 ‘誥’자를 잘못 쓴 것이다. 伊尹의 誥이다. (吉當爲告. 告, 古文誥字之誤也. 尹告, 伊尹之誥也.)”라고 한 것 등에 바탕하고 있다. 한편 郭店簡, 上博簡 <緇衣>에는 “尹誥云,”이라고 하고 清華簡 <尹誥>의 첫 구절을 인용하고 있어 이 구절이 <尹誥>에서 왔음을 보다 명확하게 보여준다. 廖春春(2010)도 이와 견해를 같이 하고 清華簡 <尹誥>는 今本《尚書·咸有一德》이 위서임을 증거하며 清華簡본이야말로 진정 한 <尹誥> 또는 <咸有一德>이라 하고 있다. (p.125)

5) <書序>에는 <尹誥>가 보이지 않고 단지 <咸有一德>이 있으며, 앞서 인용한 《史記·殷本紀》도 伊尹이 <咸有一德>을 지었다고 하고 있다. 이에 《禮記·緇衣》 鄭玄 注에서는 “<書序>에서는 <咸有一德>이라 하였는데, 소실되고 전하지 않는다(書序以爲咸惟一德, 今亡.)”라고 하였다. 한편 이처럼 편명이 바뀐 이유에 대해 성시훈(2016)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왜 편명이 변화하였는지 그 원인은 현재로서는 명확히 알 수 없지만, 李學勤과 福田哲之의 견해처럼(福田哲之, <清華簡<尹誥>의思想史的意義>, 《中國研究集刊》 2011년 6월, 159쪽) 문헌의 앞부분에 나오는 몇 글자를 활용하여 편명으로 활용하였을 가능성을 높게 짐쳐볼 수 있다.” (p.183)

6) 《尚書·湯誓》를 보면, “하나라 임금이 죄가 많아 하늘이 그를 죽이라고 명하신 것이요.

예시하는 징조가 서쪽과 동쪽 하늘에 나타났는데 동쪽 하늘에 나타난 징조가 보다 밝게 나타나지 않자 백성들이 “우리는 (夏에) 재앙과 화가 하루 빨리 닥치기를 바라는데 어찌해야 하는가” 하고 염려한다.(夏有祥, 在西在東, 現彰于天. 其有民率曰: ‘惟我速禍.’ 咸曰: ‘曷今東祥不彰? 今其如台?’)7) 이러한 夏나라의 폭정과 민심이반을 들은 湯은 夏를 치기로 마음을 정하며, 이에 湯과 伊尹은 盟誓한 후8) 재앙을 막는 禳祭 의식을 행한다.9) 이어 湯은 伊尹이 빈틈없는 지략과 덕10)으로 보필하는 가운데 (먼저) 따르기를 거부하는 제후들을 정벌하고 서쪽으로부터 夏의 도읍을 공격해 夏를 평정한다. 한편 이 과정에서 夏桀과 商湯의 군은 ‘水’에서 (최종) 격돌하는데 여기서 夏가 선발한 백성들을 水에

..... 하나라의 덕이 이러하니, 이제 나는 치러 가야만 하겠소. 바라건대 여러분은 나 한 사람을 도와 하늘의 별을 이루도록 하시오! .....” 라고 하고 있다. 한편 다른 나라를 정벌 하면서 하늘을 대항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는 것은 《尚書·甘誓》에서, 우왕(아니면 우의 아들 啓)이 有扈를 치면서 “유호씨는 인의예지신의 다섯 가지 행실을 경멸하고, 하늘과 땅과 사람의 세 가지 올바른 길을 태만히 하고 버리니 하늘이 그들에게 내려준 천명을 끊어 버리려 하고 계시오. 지금 나는 삼가 하늘의 별주심을 대항하려 하오.....” 라고 한 구절에서도 볼 수 있다. 또 《尚書·泰誓中》에는 “桀이 하늘을 따르지 못하고 온 세상에 해를 끼치자 하늘이 湯에게 명을 내리고 그를 도와 夏를 멸망시켰다”는 구절이 나온다. 清華簡의 경우, 비록 <尹誥>에서 하늘이 夏를 멸망시켰다고 이야기함으로써(‘尹念天之敗西邑夏’) 天命思想의 일단을 보이지만 <尹至>에는 湯(또는 통치자가)이 하늘의 숨을 받아 夏桀(피정복자)을 쳐 멸망시켰다는 식의 기술은 보이지 않는다.

- 7) 중국에서 고대 이래로 이어져온 관념에 따르면 기상(氣象)은 길흉의 징조를 뜻하며, 이러한 기상의 출현은 人事와 서로 조응한다. (양계초, 풍우란 외, p.205)
- 8) 장원태(2005)에 따르면, 盟誓는 당사자들이 하나의 동아리로 묶인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행위이다. 《左傳·哀公四年》의 기록에는 성공12년의 맹약에 대해 설명하며 “진나라와 초나라가 맹약을 맺고 좋아함과 싫어함을 같이 했다(晉, 楚有盟, 好惡同之)”라고 말하는 대목이 나온다. ‘好惡’는 씨족 집단 중심의 사회에서 집단의 결속과 이탈 방지라는 맥락에서 주로 사용되던 용어로, (여기서) ‘좋아함과 싫어함을 같이 했다(好惡同之)’는 말은 서로 이질적인 집단 간에 결속을 다지는 의미로 볼 수 있다. (p.10, p.3) 따라서, 여기서는 湯과 伊尹이 한 집단이 되어 好惡를 같이 하기로 맹서하는 의식을 치른 것이라 할 수 있다.
- 9) 아마도 동쪽 하늘에 나타난 징조가 보다 밝게 나타나지 않은데 따른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는 뒤이어 湯이 夏를 치면서 동쪽에서 나와 서쪽으로부터 夏를 공격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전국말에 쓰여진 《呂氏春秋·慎大》에서도, 伊尹이 桀의 비인 末嬀로부터 염담한 桀의 꿈에 “서방에도 태양이 있고 동방에도 태양이 있어 두 태양이 싸워 서방의 태양이 이기고 동방의 태양이 졌다”는 이야기를 토대로, 湯이 桀을 치기 위해 군대를 움직이면서 (商이 夏의 동쪽에 위치한 관계로) 나갈 때는 동쪽에서 나가 (夏로) 들어갈 때는 夏나라 도성의 서쪽으로부터 쳐들어간다.
- 10) 여기서 ‘德’은 도덕적 자질이나 도덕적 행위 이전에 주위와 모종의 관계를 맺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아래 주19, 20 참고)

들어가게 하고 “싸워라!”고 싸울 것을 독려하자 湯은 “전부 죽여라!”하고 군에 명령한다. 이러한 <尹至>의 내용을 관련 내용이 수록된 전래문헌과 비교해 보면, 먼저 앞서 인용한 《史記·殷本紀》의 기록과 기본적으로 일치한다 할 수 있다. 더불어 桀의 폭정에 대한 기술과 백성의 원망, 하에서 纘으로 돌아온 伊尹이 이러한 夏의 실정과 민심에 대해 湯에게 보고하는 것과 그 내용, 伊尹이 湯에게 귀의하여 맹서 의식을 치르는 것과 하늘 또는 꿈이 나타내는 징조와 湯이 하나라 도읍으로의 진군 시 이를 고려해 경로를 택하는 것, 그리고 湯의 夏 평정 등의 내용에 있어 《呂氏春秋·慎大》의 내용과 상당부분 일치하고 있어 흥미롭다. 또한 今本《尚書·湯誓》에서 夏나라의 실덕(죄)과 이에 따른 백성들의 비협조, 그리고 “이 해는 언제나 없어질 건가? 우리는 너와 함께 망해 버렸으면 좋겠다(予及汝皆亡!)”라고 하는 원망<sup>11)</sup>을 기록하고 있는 것과도 내용이 합치한다. 그러나 僞古文《尚書·伊訓》에서 “우리 商나라 임금님께서서는 성스러운 무력을 발휘하시고, 너그러움으로 포악함을 대신하니, 만민이 진심으로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나 <仲虺之誥>에서 “.....葛 杼부터 정벌을 시작하였습니다. 동쪽을 정벌하시면 서쪽 오랑캐들이 원망하고, 남쪽을 정벌하시면 북쪽 오랑캐들이 원망하며, ‘어째서 우리만을 뒤로 미루시는가?’라고 말하였습니다. 가시는 곳의 백성들은 온 집안이 서로 경축하며, ‘우리 임금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야 오셔서 우리를 다시 살려 주셨다’고 말하였습니다. ....” 라고 하여 만민에게 인애를 베풀고 성스러운 덕을 지닌 임금으로 湯을 미화한 것과는 차이를 보이며, 특히 죽간 끝 부분 전투장면의 지극히 사실적인 묘사도 눈길을 끈다.<sup>12)</sup> 또한 夏桀이 心志를 상실하였다

11) 今本《尚書·湯誓》에서도 같은 내용을 찾을 수 있으며(<湯誓>: 時日曷喪, 予及汝皆亡 (이 해는 언제나 없어질 건가? 우리는 너와 함께 망해 버렸으면 좋겠다), 이는 《孟子》에서도 인용되고 있다.(《孟子·梁惠王》: <湯書>曰: 時日曷喪, 予及汝皆亡)

12) 西周禹鼎(《集成》二八三三—二八三四) 銘에 “노인과 어린아이도 남기지 말라.(勿遺壽幼)”고 한 기록이 있어 당시 전쟁의 냉혹함을 엿보게 한다. 今本《尚書·甘誓》에 우왕(아니면 우의 아들 啓)가 有扈를 치면서 군사들에게 “명을 따르지 않는 자는 땅의 신 앞에서 죽이 되, 그들의 처자까지도 죽여 버리겠다.(不用命戮于社, 予則孥戮汝)”고 하거나 <湯書>에서 湯王(成湯)이 夏桀을 치면서 군사들에게 “훈시를 따르지 않는다면 죽이 되 처자까지도 함께 죽일 것이며 용서하지 않겠다(爾不從誓言, 予則孥戮汝, 罔有攸赦)”고 한 것도 고대의

고 하면서 동시에 夏나라의 종족은 사람들이 어질고 선하지 않다고 한 것(其有夏衆不吉好, 其有后厥志其喪)도 주목된다. 그리고 伊尹과 관련해서도 《尙書》는 물론 《孟子》와 《荀子》를 비롯한 다수의 전래문헌에서 伊尹이 지극한 현신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비해<sup>13)</sup> <尹至>에서는 伊尹이 단지 치밀한 지모와 덕으로 商湯을 보좌해 夏를 멸망시킨 조력자로 묘사되는 한편 夏에서 商의 도읍인 亳으로 오는 과정에서 夏의 사정을 은밀히 살펴 湯王에게 보고하는 정탐자로도 묘사되고 있다.<sup>14)</sup> 한편 商湯과 夏 사이의 전투와 관련해, 《尙書·湯誥》의 <書序>에서는 “鳴條의 들판에서 桀과 싸웠다”라고 하고 있고, 《史記》에는 “桀이 有城氏의 옛 땅에서 商湯과 싸워 패하고 鳴條로 달아나자 夏나라 군사들은 뿔뿔이 흩어져 무너졌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반해 <尹至>에는 ‘水’<sup>15)</sup> 땅에서의 전투가 언급되어 있다.

반면 <尹誥>는 夏가 멸망한 후 伊尹이 그 원인을 생각해 보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伊尹과 湯이 이미 同心同德이 되어 伊尹이 湯을 보좌하고 있음을 먼저 이야기 하고 시작한다.(惟尹既及湯咸有一德) 伊尹은 夏가 멸망한 원인을 군주가 백성들을 미혹시키고 어지럽혀 이들의 분노와 원망을 삼으로써 군주와 백성의 마음이 이반된대 있다고 보고 湯이 이를 거울삼아 백성을 잘 보듬음으로써 이들과 화합하고 나라를 안정시킬 것을 간하는데 이는 湯이 夏를 멸하고 천하의 패자가 된 후 아직 商이 안정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伊尹은 湯에게 “우리를 따르는 제후들과는 화목하게 지내고 있으니 이제는 백성들과 잘 화합해야 멀리 있는 제후들도 스스로 와서 귀의하고자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 이는 나라의 안정을 위해 내부적으로 백성들과 화합하고 이들을 잘 보듬을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夏를 대체해 건국된 商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천

전쟁과 관련해 사실적인 기술로 생각된다.

13) 전래문헌에 보이는 현신으로서의 伊尹의 이미지 변천에 대해서는 夏大兆·黃德寬(2014)과 성시훈(2016)에서 자세히 분석 소개하고 있다.

14) 《呂氏春秋·慎大》나 《孫子》에 湯이 夏를 멸망시키는 과정에서 伊尹을 간첩으로 운용했음에 대한 기록이 있다. 그러나 <尹至>에서는 일단 伊尹이 夏에서 商의 도읍인 亳으로 오는 도중에 夏의 사정을 정탐해 湯王에게 보고했다는 것만 기술되어 있다. 관련해서는 성시훈(2016, pp.205~209)에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15) 3. 清華簡 <尹至> 역주, 【주석】 48을 참고할 것.

하의 제후들이 두루 귀의해야 하는 과제가 있음을 암시한다.<sup>16)</sup> 이에 湯이 伊尹에게 그렇다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는데, 伊尹은 전쟁을 통해 획득한 夏의 진귀한 보물과 토지 등을 이들에게 상으로 나누어주고 보듬어 이들이 따르도록 할 것을 진언하며, 湯이 이러한 伊尹의 충고를 따름으로써 민중들이 도성 안으로 모이고 나라가 안정됨을 이야기하고 있다.<sup>17)</sup> <尹誥>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夏를 통치한 桀이 선정을 베풀지 않아 백성들의 지지를 잃게 되었고 따라서 하늘이 그에게 내려주었던 통치권을 빼앗아 湯에게 내려준 바, 湯이 이러한 교훈을 잘 새겨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을 베풀어 백성들의 지지를 얻고 화합을 일구어낼 때 정치적 지위가 확보 되어 멀리 있는 제후들까지 귀속 시킴으로써 나라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것이며, 湯이 伊尹의 이러한 충고를 받아들임으로써 나라의 안정을 기할 수 있었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伊尹과 湯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본다면 <尹至>와 <尹誥>는 둘 사이의 ‘一德’을 중심에 두고 전개되는 이야기라 할 수 있다. <尹誥>에서는 첫 구절에 “惟尹既及湯咸有一德”이라 하여 이를 먼저 밝히고 이야기를 전개하며, <尹至>에서는 湯이 伊尹과 ‘盟誓’를 통해 둘 사이에 ‘好惡를 함께 할 것’을 분명히 한 후 비로소 따르지 않는 제후들을 정벌하고 夏를 쳐 멸망시킨다.<sup>18)</sup>

16) 이는 역사학자들의 기록을 봐도 그러하다. 후대에 주나라가 건국된 초기의 상황을 보더라도, 무왕의 동정과 승리로 성립한 주 왕조는 여전히 중대한 시련을 견뎌야 했으며, 무왕은 강대한 은의 잔존세력을 그래도 남겨둔 채 죽었다. 이때 주가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은 낙양 서쪽, 섬서성의 위하 유역에 불과했다. 그런 가운데 은 등의 동방세력은 하남성 북·중부와 산둥성 서부에서 회하 부근에 걸쳐 있었는데, 주의 지배 아래 있던 제후들은 이 지역에서의 반란에 대해 출정에 소극적이었다. (가이즈카 시케시·이토 미치하루 《중국의 역사》 선진시대 편, p.190)

17) 중국은 선진시기까지만 해도 국가와 국가 간에 인구 이동이 심했고, 왕도를 행하는 곳으로 인민이 이동하곤 했던 것으로 보인다. 廖名春(2014)은 《禮記·緇衣》에 “子曰：夫民，教之以德，齊之以禮，則民有格心；教之以政，齊之以刑，則民有慙心(대저 백성은 덕으로 가르치고 예로 일정하게 가지런하게 하면 임금의 덕을 사모해서 올 마음이 있으며, 정치로 가르치며 형으로 가지런하게 하면 도피해서 구차하게 면하려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 것은 이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18) 이런 면에서 본다면, 張兵(2016)이 <尹誥>에 대해 “‘一德’ 사상의 萌芽가 나타나지만 상세하게 사물의 발전규율에 부합되지는 못했다”고 하면서 清華簡 <윤고>는 본래 <書序>에 없었고 정리되지 않은 원시문헌이라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주장에 타당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된다. 참고로 清華簡 <尹誥>가 고문상서 <尹誥> 또는 <咸有一德>의 진본이라는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논문으로는 姜廣輝·付贊

장원태(2005)에 따르면, 중국 고대에 있어 '德'이란 도덕적 자질이나 도덕적 행위의 의미 이전에 무리 또는 집단 내부나 군신사이에 유지되는 일체감 내지 동질성을 나타내는 측면이 강했으며,<sup>19)</sup> 사회가 점차 발전하면서는 이질적인 개인 혹은 집단들을 서로 엮어 주는 일, 즉 이들 사이에 서로 좋아함과 싫어함을 같이하고(好惡同之) (각자의) 마음을 갖지(有心) 않게 하는 일이 왕이 가져야 할 '德'이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德'은 시혜를 통해 군주와 백성들(또는 신하들, 제후들) 사이에 일체감을 조성하고, 백성들(또는 신하들, 제후들)이 군주에게 받은 시혜를 마음에 품고(懷德) 두 마음 또는 이반하는 마음(二心, 貳心)을 품지 않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sup>20)</sup> <尹誥>의 첫 구절 "惟尹既及湯咸有一德"에서 '咸有一德'의 의미는 이러한 집단 내부의 동질성과 결속, 달리 말해 군신간의 일체성을 나타낸다 하겠으며, 군주 또는 신하의 덕이란 이를 유지해 나가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덕성이라 할 수 있다. 이는 《禮記·緇衣》에서 인용하고 있는 동일 구절(<尹吉(誥)> 曰: 惟尹躬及湯咸有壹德)에 대한 鄭玄注에서 "군신이 함께 한결같은 덕을 갖고 둘로 나뉘지 않으니 서로 간에 의혹이 없다(君臣皆有壹德不貳則無疑惑也)"라고 한 데서도 알 수 있다.

(2014), 黃懷信(2011b), 楊善群(2012, 2016), 張兵(2016) 등이 있다.

- 19) 장원태(2005)에 따르면, 춘추시대 중기 이전까지는 (그때까지 유지되어 사회체제의 기반이었던) 씨족 내부에서 동질성이 강조되고 씨족들 사이에서는 차이가 강조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었다. 이 시기 사회 구성의 기본 단위인 씨족에 따라 '德', '心', '志'가 다르다고 인식되었으며 <左傳>과 <國語>의 다음 기록은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말해준다. <左傳·成公四年>: "史佚之《志》에는 '나와 같은 씨족이 아니라면 그 마음이 반드시 다를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초나라가 비록 강대국이지만, 우리와 같은 씨족이 아니니 우리를 아껴주겠습니까?(史佚之《志》有之, 曰: '非我族類, 其心必異.' 楚雖大, 非吾族也. 其肯字我乎?)"라고 했다. <國語·晉語> 4: "성(姓)이 같으면 덕이 같고, 덕이 같으면 마음이 같고 마음이 같으면 뜻이 같습니다. 뜻이 같다면 비록 혈연관계가 먼 사람이라 할지라도 남녀가 결혼하지 않습니다.(同姓則同德, 同德則同心, 同心則同志, 同志雖遠, 男女不相及)" 이러한 '덕'에 걸린 관념은 전국시대의 사유에도 그 유산이 남는다. (pp.8~14를 참고함)
- 20) 장원태(2005)에 따르면, 이러한 감화의 과정은 통치자가 먼저 시혜를 베풀고 관대한 행동을 보여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통치자가 관계의 중심에 서기 위해서는 자신의 덕을 밝게 드러내거나 존중해야 하며(明德, 敬德) 따라서 이러한 훈계가 끝없이 반복되었다고 하고 있다. (p.39) 결국, 이러한 것이 <尙書>나 <詩經> 등의 古典籍에서 군주의 덕이 끊임없이 강조되고 더불어 미화되어 칭송되는 결과로 이어졌을 것이며, 今本<尙書·咸有一德>과 같은 문헌에서 군주가 '한결같이 올바른 덕(一德)'을 가지고 그것이 '終始惟一'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라고 생각된다.

### 3. 清華簡 <尹至>역주21)

#### 【간문】

佳(惟)尹[1]自 頤 (夏) 蘆 (徂) 白(毫) [2], [3] 彘 (遂) [4]至才(在) [5]湯= (湯. [6]湯) 曰: “各(格) [7]! 女(汝) 元(其) 又(有) 吉志[8]?” 尹曰: “句(后) [9]! 我速(來), 越(越) [10]今句= (句日) [11]. 余 兗 (微) [12]元(其) 又(有) 頤 (夏) [13]衆[14] [不] [15]吉好[16], 元(其) 又(有) 句(后) 屨(厥) 志元(其) 倉(喪) [17]. 龍(寵) 二玉[18], 弗 暴(虞) [19]元(其) 又(有) 衆. 民沈(允) [20]曰[21]: ‘余及(及) 女(汝) 皆(偕) 亡(亡) [22]. ‘佳(惟) 載(載) [23] 廬(虐) [24]惠(德) [25], 暴(暴) 腫(動) 亡(無) 箕(典) [26]. 頤 (夏) 又(有) 恙(祥) [27], 才(在) 西才(在) 東, 見(現) 章(彰) [28]于天. 元(其) 又(有) 民 銜(率) 曰: ‘佳(惟) 我速 禍(禍) [29]. ‘咸曰: ‘憲(曷) [30]今東恙(祥) 不章(彰)? 今元(其) 女(如) 台(台) [31]?’ 湯曰: “女(汝) 告我 頤 (夏) 隱(隱) [32] 銜(率) 若寺(時) [33]?” 尹曰: “若寺(時). ” 湯 盟(盟) 誓(誓) [34]及(及) 尹, 蔡(茲) 乃[35]柔[36]. 大縈(縈) [37]. 湯 往(往) 延(征) 弗 隳(附) [38], 報(摯) [39] 庀(度) [40] 報(摯) 惠(德) 不 憲(僭) [41]. 自西[42] 戩(翦) [43] 西邑[44],

21) 본 역주는 清華大學藏戰國竹簡整理小組(이하 整理者라 함)가 연구 발표한 《清華大學藏戰國竹簡(壹)》(上海: 中西書局, 2010)과 그밖에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검토하고 자체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張崇禮의 연구를 토대로 이연주가 우리말로 역주하였으며 죽간의 내용과 특징에 대해 정리하였다. 주석에서 개별 학자의 견해를 직접 인용한 경우는 학자명과 발표연도를 명시하였다.

𡗗 (戡) [45] 元 (其) 又 (有) 𡗗 = (夏. 夏) 𡗗 (料) [46]  
 民, 內 (納) [47] 于水 [48], 曰: “ 𡗗 (戰) ! ” 帝 [49] 曰: “ 一 [50] 勿  
 遺 (遺) [51]. ”

惟尹自夏徂亳, 遂至在湯. 湯曰: “ 格! 汝其有吉志? ” 尹曰: “ 后! 我來, 越今旬日. 余微其有夏衆不吉好, 其有后厥志其喪. 寵二玉, 弗虞其有衆. 民允曰: ‘ 余及汝偕亡. ’ 惟載虐德, 暴動無典<sup>22)</sup>. 夏有祥, 在西在東, 現彰于天. 其有民率曰: ‘ 惟我速禍. ’ 咸曰: ‘ 曷今東祥不彰? 今其如台? ’ ” 湯曰: “ 汝告我夏隱率若時? ” 尹曰: “ 若時. ” 湯盟誓及尹, 茲乃柔. 大禘. 湯往征弗附, 摯度摯德不僭. 自西翦西邑, 戡其有夏. 夏料民, 納于水, 曰: “ 戰! ” 帝曰: “ 一勿遺. ”

### 【주석】

[1] 整理者(2010)<sup>23)</sup>: 尹은 伊尹이다. 淸 梁玉繩《古今人表考》卷二에 伊尹에 대해 “ 伊는 氏이고, 尹은 字이며, 名은 摯 ” 라고 했다.

[2] 整理者(2010): ‘ 白 ’ 과 ‘ 亳 ’ 은 모두 並성모 鐸운부의 글자다.

[3] 整理者(2010): “ 自夏徂亳 ” 은 《國語·楚語上》에서 武丁이 “ 황하로부터 막으로 갔으니(自河徂亳) ” 이라고 한 구절과 유사하다.

[4] 整理者(2010): 彘 은 글자가 彘聲으로 구성되었고, ‘ 遂 ’ 의 通假이다. 黃懷信(2011): 遂은 《說文》에 “ 행동을 조심조심 삼가는 모양이다. 글자가 從 辵 彘聲으로 이루어졌다. (行謹遂也. 從 辵 彘聲) ” 고 했고, 《廣韻》에 “ 행동을 삼가다(行謹)의 뜻 ” 이라고 했으며, 《集韻》에 “ 삼가다(謹)의 뜻 ” 이라고 했다. 謹은 곧 삼가고 조심하다(謹慎)의 뜻이다. 行謹은 곧 삼가고 조심하며 가다의 뜻이다.

22) “ 惟載虐德, 暴動無典 ” 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학자들이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소개와 이와 같이 끌어 읽고 해석한 데 대해서는 <淸華簡《尹至》補釋(四則)> (張崇禮, 2018 투고 예정)에서 별도로 다룰 예정이다.

23) 본고에서 인용한 整理者의 주장은 모두 <淸華大學藏戰國竹簡(壹)> (2010, 中西書局) pp.128-134에서 인용하였다.

[5]整理者(2010): 才는 ‘在’의 通假이다.

[6]廖名春(2010): ‘在’는 介詞로 動作이나 行爲가 진행되는 곳 또는 對象을 나타낸다. ‘至在’는 ‘至於’와 같다. ‘至在湯’은 湯이 있는 곳으로 와서 湯에게 고 하다는 뜻이다.

[7]整理者(2010): ‘湯曰格’은 《書·湯誓》의 “王이 말했다. ‘오라’(王曰: 格)”라는 구절, <盤庚上>의 “왕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오라!(王若曰: 格)”라는 구절과 유사하다. 廖名春(2010): ‘格’은 오다(來)의 뜻이다. 《爾雅·釋言》에 “格은 오다(來)의 뜻”이라고 했다.

[8]整理者(2010)는 吉志를 《說文》에서 吉은 “선하다(善)의 뜻”이라고 했고, 志는 “생각, 의사(意)의 뜻”이라고 했다고 풀이했는데, 吉志는 좋은 의향을 말한다. 여기서는 伊尹의 商에 대한 좋은 의향을 가리킨다. 즉 商에 귀순할 의향이 있음을 말한다.

[9]沈建華(2011): 后는 君主를 가리킨다. 伊尹이 湯을 부르는 호칭이다. 《說文》에 “后는 선조들의 王위를 이어받은 繼體君”라고 했다.

[10]整理者(2010): 越 字에는 止가 있다. 越은 이르다(及)로 풀이된다. 예를 들면 《書·召誥》에 “越六日乙未(6일 을미에 이르러)”와 “越三日戊申(3일 무신에 이르러)”이 있다. 《經傳釋詞》참조.

[11]整理者(2010): ‘旬日’은 合文이며, 合文符號가 있다.

[12]黃懷信(2011): 𡗗 는 글자 그대로 ‘微’의 通假로 추정되며, 동사로 쓰였다. 《墨子·迎敵祠》에 “조심스럽게 자세히 관찰하고(謹微察之)”라는 구절의 孫詒讓 問詁에서는 王念孫을 인용하여 “微는 엿보고 알아보다(伺問之也)의 뜻”이라고 했다. 《史記·孝武本紀》에 “사람을 시켜 조관 등이 간사하게 이익을 챙긴 일을 은밀히 알아내고(使人微得趙綰等奸利事)”라는 구절의 集解에서는 徐廣을 인용하여 “微는 세세하게 엿보고 사찰하다(緝微伺察之)의 뜻”이라고 했다. 엿보고 알아보다(伺問), 세세히 사찰하다(緝伺察之)는 몰래 정탐하고 물어보는 것을 말한다. 몰래 정탐한 것은 伊尹이 間諜이었던 사실에도 합치된다.

[13]黃懷信(2011): 有夏는 즉 夏이다. ‘有’는 접두사이다.

[14]張崇禮(2014): 清華簡<尹至>와 <尹誥>의 ‘衆’은 朱鳳瀚(2009)이 논한 殷墟卜辭와 《孟子·滕文公》의 ‘衆’과 함의가 같다. 이상의 ‘衆’字는 모두 광의적 용법으로 쓰여 商나라 사람들 宗族 구성원을 두루 지칭한다. 簡文의 문장의 의미로 보아 ‘衆’과 ‘民’은 상대적으로 말하면 다르고, 혼합해서 말하면 거의 비슷하다. 이는 아마도 ‘衆’의 주체가 宗族 내의 평민이며, 그들의 수가 많아 사실 일반 평민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15]李松儒(2011): <尹至>簡2의 첫 글자는 ‘不’字이다. 簡3과 簡5 등의 ‘不’을 참조<sup>24)</sup>

[16]吉好는 ‘吉’과 ‘好’의 의미가 비슷하다. 《說文·口部》에 “吉은 선하다(善)의 뜻”이라고 했다.

[17]沈建華(2011): 倉은 ‘喪’의 通假로 추정된다.

[18]整理者(2010): 寵二玉은 琬과 琰 두 여인을 총애하더라를 말한다. 《太平御覽》卷135에서 《紀年》을 인용하여 “桀이 岷山을 정벌하고, 岷山에서 桀은 두 여인을 얻었는데, 하나는 琬이라 하고, 또 하나는 琰이라 하였다. 桀은 두 여인을 총애하였으며 자식은 없었다. 그 이름을 苜華之玉에 새겼는데, 苜는 琬이고 華는 琰이다.(后桀伐岷山, 岷山女於桀二人, 曰琬曰琰. 桀受二女, 無子, 刻其名於苜華之玉, 苜是琬, 華是琰)”라고 했는데, 이 이야기는 《呂氏春秋·慎大》와 上海博物館藏簡<容成氏>에도 보인다.

[19]整理者(2010): 𠄎은 ‘虞’의 通假이다. 《太玄·玄瑩》范望 注에 “걱정하다(憂)의 뜻”이라고 했다. 《呂氏春秋·慎大》에서 桀이 “그 민중을 걱정하지 않았다(不恤其衆)”고 하였다. ‘恤’은 또 걱정하다(憂)로 풀이된다.

[20]孫飛燕(2011): <尹至>簡2의 ‘沈’字는 또 銀雀山漢墓竹簡<六韜>의 “실로 그러하도다! 시간이 긴박하도다(沈(允)才(哉)! 日不足)”라는 구절에도 보인다. <六韜>의 ‘沈’은 ‘允’의 通假이며, <尹至>의 ‘沈’도 ‘允’의 通假로 볼 수 있다.<sup>25)</sup>

24) 復旦大學出土文獻與古文字研究中心研究生讀書會(이하 復旦大學讀書會라 칭함), <清華簡<尹至>、<尹誥>研讀札記(附:<尹至>、<尹誥>、<程寤>釋文)>(復旦大學出土文獻與古文字研究中心網站, 2011.01.05.) 文後評論, 2011.01.05.

[21]張富海(2014): 王引之《經傳釋詞》에서 王念孫을 인용하여 “允은 쓰다(用)와 같다”고 했다. ‘允’이 ‘用’처럼 쓰인다는 王念孫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 簡文의 “民允曰”은 “民用曰”과 같다. 앞에서 “夏衆不吉好, 夏后志爽”이라고 운운한 것이 모두 백성들이 “余及汝偕亡”이라는 모진 말을 한 이유이기 때문에 “民允曰” 즉 백성들이 그로 인해 말했다고 한 것과 문장의 의미가 잘 연결된다.

[22]整理者(2010): ‘余及汝皆亡’은 《書·湯誓》에 “이 날은 언제 없어질꼬? 내가 너와 함께 亡하리라(時日曷喪? 予及汝皆亡)”라고 했는데, 《孟子·梁惠王上》에서는 ‘皆’를 ‘偕’로 인용하였다.

[23]宋華強(2011): 載는 ‘載’의 通假이다. 載는 가다(行)의 뜻이다.

[24]整理者(2010): ‘虘’은 從 ‘虘’으로 이루어진 글자이며, 《說文》古文 ‘虐’이다.

[25]虐德은 德虐과 같다. 《國語·越語下》에 “상과 벌을 시행하여 천지의 常法으로 삼고(德虐之行, 因以爲常)”라고 했는데, 韋昭 注에 “德은 회유하고 상을 내리는 것을 이른다. 虐은 벌하고 내치는 것을 이른다.”라고 했다. 馬王堆 帛書《十六經·果童》에 “(고요함과 움직임이 서로 보완되고, 상과 벌이 서로 이루어져(靜作相養, 德虐相成))”라고 했다. 虐德은 병렬식 명사구로 罰과 賞을 뜻한다.

[26]馮勝君(2014): ‘暴動’은 함부로 행동하다, 행동이 법도를 따르지 않다는 말한다. 즉 “亡(無)典”을 말한다.

[27]整理者(2010): 恙은 ‘祥’의 通假로, 《左傳·昭公十八年》注에 “변화의 기운(變異之氣)”이라고 했다.

[28]沈建華(2011): 章은 彰과 통한다. 《尚書·皐陶謨》에 “그것이 밝게 드러나고 언제나 그러하면 길합니다.(彰厥有常, 吉哉!)”라고 했는데, 鄭注에 “彰은 밝다(明)의 뜻이다. 吉은 선하다(善)의 뜻”이라고 했다. 《尚書·洪範》에 “다스림이 밝아지며 뛰어난 백성들이 드러나며 집집마다 화평하고 편안해질 것입니다.(乂用明, 俊民用章, 家用平康)”라고 했다.

[29] “惟我速禍”는 나는 재앙과 재난이 빨리 닥치기를 바란다는 뜻이다.

[30] 沈建華(2011): 𤝵는 從害聲으로 이루어졌으며, 曷의 通假이다. 두 글자는 모두 고음이 月운부이다. 《說文》에 “曷은 어찌(何)의 뜻”이다. 《尚書·西伯戡黎》에 “하늘이 어찌 임금에게 권위를 내리지 않는단 말인가? 천명이 이뤄지지 않는단 말인가? 지금 임금은 어찌 할까(天曷不降威? 大命不摯? 今王其如台)”라고 했다.

[31] 整理者(2010): ‘其如台’는 <商書>에 자주 보인다. 예를 들면 <湯誓>에 “하나라의 죄를 어찌 할까(夏罪其如台)”와 <盤庚上>에 “이에 점을 쳐 이르기 어찌 할까(卜稽曰其如台)”, <高宗彤日>에 “이를 어찌 할까(其如台)”, <西伯戡黎>에 “지금 왕은 어찌 할까(今王其如台)” 등이 있는데, ‘如台’의 의미는 ‘어찌 할까’이다.

[32] 整理者(2010): 𤝵는 從陞聲으로 이루어졌으며, 影성모 文운부로, 同音인 ‘隱’의 通假이다. 廖名春(2010): ‘隱’은 은밀한 속사정(隱情)이다. ‘夏隱’은 夏의 속사정을 말한다.

[33] 整理者(2010): 寺는 ‘時’의 通假이다. 《詩·駉》箋에서 ‘是’로 풀이하였다.

[34] 𤝵는 楚簡에서 주로 ‘慎’으로 쓰였다. 여기서는 ‘誓’의 通假이다. 陳劍(2007)은 金文에 보이는 ‘𤝵’은 모두 후에 ‘𠄎’으로 필사하는 글자로 이루어졌는데, 즉 ‘質’字의 聲符인데, 質聲과 折聲은 각각 質운부와 月운부이며, 古音이 상당히 가깝다고 할 수 있으며, 게다가 古書에서 통용된 예도 확실히 존재한다고 주장했다.(高亨 등의 《古字通假會典》p.569 ‘質與誓’ 항목을 참조할 것) 古書의 ‘矢’은 자주 ‘誓’로 通假되었다. 從矢聲의 ‘知’와 從眞聲의 ‘寘’는 통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莊子·人間世》에 “아무도 그것을 피할 줄 모르네(莫之知避)”라고 했는데, 《經典釋文》에서 “知는 본래 寘로 쓴다”고 했다. 盟誓라는 어휘는 古書에 자주 보인다. 예를 들면 《國語·魯語上》에 “사방의 이웃 국가들이 서로 지원을 하고, 제후들과 신뢰를 쌓고, 혼인을 통해 이를 강화하고, 맹약을 맺어 이를 공고히 하다(夫爲四鄰之援, 結諸侯之信, 重之以婚姻, 申

之以盟誓”라는 구절이 있으며, 《荀子·富國》에도 “섬기기를 재물이나 보배로써 하면 재물이나 보배가 다 없어지더라도 제대로 맺어지지 않게 되고, 믿음을 약속하고 맹세로써 하면 약속이 정해지더라도 하루도 안 되어 배반하게 되고(事之以貨寶, 則貨寶單而交不結; 約信盟誓, 則約定而畔無日)”라는 구절이 있다.

[35]馮勝君(2014): 典籍의 用例로 볼 때 ‘茲乃’는 인과관계를 표시하는 접속사가 틀림없다.

[36]柔는 복종하다(順服), 순종하다(順從)의 뜻이다. 《公羊傳·昭公二十五年》에 “무릇 소와 말을 매어두고 자신을 굽히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且夫牛馬維婁, 委已者也, 而柔焉)”이라고 했는데, 何休 注에 “柔는 다르다(順)의 뜻”이라고 했다. “湯盟誓及尹, 茲乃柔”는 商湯과 伊尹이 결맹을 하고 서약을 해서 伊尹이 복종함을 말한다.

[37]子居(2010): 禘는 ‘禘’의 通假이다. 《說文·示部》에 “禘는 먼 띠를 진열하여 쌓을 만들어 비와 바람, 눈과 서리, 홍수와 가뭄, 각종 질병을 막아달라고 日月星辰山川에 제사지내는 것을 말한다. 글자는 從示禘省聲으로 이루어졌다. 일설에 禘衛라고도 하는데, 재난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禮記》에 ‘雩는 재앙을 막는 제사(禘)이다. 홍수와 가뭄을 막기 위한 제사’라고 했다. (禘, 設縣蕪爲營, 以禳風雨雪霜水旱癘疫於日月星辰山川也. 從示, 禘省聲. 一曰禘衛, 使災不生. 《禮記》曰: 雩, 禘. 祭水旱)”고 했다.

[38]整理者(2010): 雩 은 바로 ‘鳥’字로, 從 鳥 聲이다. ‘鳥’은 즉 ‘鳥’字이며, 실은 從 刀 得 聲의 글자이다. 讀書會(2011): ‘雩’은 ‘附’의 通假로 볼 수 있다. 《孟子·滕文公下》에서 《書》를 인용하여 “항복하지 않는 무리가 있자 동쪽을 정벌하여 그곳 남녀를 편안하게 해주니 광주리에 검은 비단을 신고 우리 주나라 왕의 아리따움을 본다고 하면서 큰 고을 주나라의 신하가 되겠다고 하였다.(有攸不惟臣, 東征, 綏厥士女, 匪厥玄黃, 紹我周王見休, 惟臣附于大邑周)”라고 했는데, 먼저 ‘征’을 말하고 후에 ‘附’를 말한 것으로 여기의 “往征弗附”를 유추해 볼 수 있다.<sup>26)</sup>

[39]整理者(2010): 伊尹은 名이 摯이다. 《孫子·用間》, 《墨子·尙賢中》, 《楚辭·離騷》와 <天問> 등에 보인다.

[40]整理者(2010): 厖은 즉 '宅'이다. '度'字와 통한다. 《爾雅·釋詁》에 “度는 지략(謀)의 뜻”이라고 했다.

[41]整理者(2010): 《詩·抑》에 “어긋나고 헤치는 일 없다면(不僭不賊)”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傳에서 “僭은 어긋나다(差)의 뜻”이라고 했다. ‘不僭’은 또 《詩·鼓鍾》, <殷武>와 《書·大誥》 등에 보인다. 番生簋(《殷周金文集成》四三二六)에 “도덕적으로 어긋나지 않은 사람을 널리 찾다(溥求不僭德)”이라는 구절이 있다.

[42]整理者(2010): 自西는 《呂氏春秋·慎大》의 “그리하여 군대로 하여금(나올 때는 商나라 도성의) 동쪽으로부터 나오게 하여(들어갈 때는 夏나라 도성의) 서쪽으로 들어가게 하였다(故令師從東方出於國, 西以進)”를 참조하면, 天象<sup>27)</sup>에 따라 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43]讀書會(2011): 우리는 ‘戠’가 바로 甲骨과 金文에서 자주 보이는 ‘戠’字라고 추정하며, ‘翦’으로 釋讀한 陳劍의 주장을 따른다.<sup>28)</sup>

[44]沈建華(2011): 西邑은 夏의 수도 西亳 偃師 商城이다. 《逸周書·度邑》에 “洛汭에서 伊汭에 이르기까지 그 땅이 평탄하고 험한 곳이 없어서 하나의 주 근거지가 되었다.(自洛汭延於伊汭, 居陽無固, 其有夏之居)”라고 했는데, 西邑은 伊강과 洛강 일대로 추정된다.

[45]整理者(2010): 窋은 ‘戠’의 通假로, 즉 《說文》의 ‘戠’字의 古文이다. <西伯戠黎>序傳에 “이기다(勝)의 뜻”이라고 했다.

[46]復旦大學讀書會(2011)는 𠄎를 字形에 근거하여 ‘料’라고 隸定하였으며,<sup>29)</sup> ‘料民’ 또는 ‘料人’의 주요 의미는 좋은 인재를 선별하는 것이라고 했

26) 復旦大學讀書會, 復旦大學出土文獻與古文字研究中心網站, 2011.01.05. (又見彭林主編《中國經學》第八輯 pp.23-30, <清華簡<尹至>、<尹誥>、<程寤>研讀札記>,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11)

27) 주9 참고.

28) 復旦大學讀書會, 復旦大學出土文獻與古文字研究中心網站, 2011.01.05.

29) 復旦大學讀書會, 復旦大學出土文獻與古文字研究中心網站, 2011.01.05.

다.<sup>30)</sup> 여기서의 ‘料’는 선택하다, 간택(簡擇)하다는 뜻으로 이런 용법은 문헌에 자주 보인다. 《鬼谷子·捭闔》에 “捭之者, 料其情也(일부를 없애는 것은 좋은 것을 선별해내기 위함이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陶弘景의注에 “料는 선택하다는 뜻한다”고 했다. 《文選》顏延之<赭白馬賦>에 “料武藝(무예를 택하고)”라는 구절이 있는데, 劉良의注에 “料는 택하다(擇)의 뜻”이라고 했다.

[47] 內는 ‘納’의 통가자로 들어가게 하다(使進入)의 뜻이다. 《書·舜典》에 “納於百揆, 百揆時敘…… 納於大麓, 烈風雷雨弗迷(여러 관원으로 임명하니, 모든 관직에 질서가 잡히게 되었다. …… 큰 숲 속에 들어가게 했으나, 심한 바람과 뇌우에도 방향을 잃지 않으셨다.)”라는 구절이 있다.

[48] 整理者(2010): 水는 地名이다. 《墨子·三辯》에 “湯은 大本에서 桀을 패배시켰다.(湯敗桀於大本)”고 했는데, 《道藏》에는 본래 “湯은 大水에서 桀을 쫓아냈다.(湯放桀於大水)”고 되어 있다.

[49]整理者(2010): 帝는 이미 즉위한 湯을 가리킨다. <天問>에서 ‘后帝’라고 칭했다.

[50]整理者(2010): 一은 《大戴禮記·衛將軍文子》注에 “모두(皆)의 뜻”이라고 했다.

[51]整理者(2010): 勿遺는 <盤庚中>에 “나는 그를 베어 멸망시키고 자손도 남기지 않음으로써(我乃劓殄滅之, 無遺育)”라고 한 것을 참조하라. 또 西周 禹鼎(《集成》二八三三一—二八三四)의 銘에 “노인과 어린아이도 남기지 마라(勿遺壽幼)”라고 한 것을 참조하라.

### 【간문 번역】

伊尹이 夏나라로부터 商의 도읍인 亳으로 갔다. 삼가고 조심하며 湯이 있는 곳에 이르렀다. 湯이 말하였다. “어서 오시오, 당신은 좋은 의향을 가지고 오지 않았소?” 伊尹이 말하였다. “君主시여,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오늘로 열흘이 걸

30) 復旦大學讀書會, 復旦大學出土文獻與古文字研究中心網站, 2011.01.05. (《中國經學(第八輯)》,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11)

렸습니다. 오는 중에 은밀히 관찰하고 알아보았는데, 夏의 宗族은 사람들은 어질고 선하지 않으며 군주는 心志를 상실하였습니다. 琬과 琰 두 여인을 총애하며 그의 族人들을 우러르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멸망하리라.’ 시혜를 베풀고 벌을 내리는 것이 혼란스럽고, 典章과 法度を 따르지 않습니다. 夏나라에 吉凶을 암시하는 징조가 서쪽 하늘과 동쪽 하늘에 출현하였습니다. 그의 백성들은 말합니다. ‘재앙과 화가 하루빨리 닥쳤으면 한다.’ 모두 말합니다. ‘왜 동쪽 하늘의 징조가 彰明하지 않는가? 이제 어찌 해야 한단 말인가?’ 湯이 말했다. ‘그대가 나에게 고한 夏나라의 상황이 실로 그러하단 말인가?’ 伊尹이 말하였다. ‘바로 그러합니다.’ 湯과 伊尹이 結盟을 맺고 서약을 하였으며, 伊尹이 商湯에 귀순하였다. 湯은 재앙을 물리치는 禳祭를 성대히 거행하였다. 湯은 따르기를 거부하는 나라를 정벌하였는데, 尹摯의 지모와 德<sup>31)</sup>은 한 치의 오차도 없었다. 商湯의 군대는 서쪽으로부터 夏의 도움을 공격하여 夏나라를 평정하였다. 夏나라는 백성들 중 선발하여 그들로 하여금 水라는 지역에 들어가게 하고는 “싸워라!”고 말했다. 商湯(帝)이 말했다. “전부 죽여라,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조리!”

#### 4. 清華簡 <尹誥>역주

##### 【간문】

佳(惟)尹既[1]返(及)[2]湯咸又(有)一惠(德)[3]。尹念天之敗(敗)西邑 顛(夏), 曰: “ 顛(夏)自 憇(幻)[4]元(其)又(有)民, 亦佳(惟)乎(厥)衆[5]。非民亡(無)與 獸(守)邑[6], 乎(厥)辟 復(作)[7] 愆(悞)于民= (民, [8]民) 愆(復)[9]之, 甬(用)麗(離)心, 我 戡(翦) 滅(滅) 顛

31) 주10 참고.

(夏) [10]。今句(后) 善 (曷) 不藍(監) [11]?” 鞞 (摯) 告湯曰：“我克 纘 (協) [12]我 吝 (友)，今佳(惟)民，遠邦 通 (歸) 志[13]。”湯曰：“於 虐 = (乎! 吾) 可(何) 隻 (作) [14]于民 [15]，卑(俾)我衆勿韋(違)朕言?” 鞞 (摯) 曰：“句(后) 元(其) 李 (賚) [16]之元(其) 又(有) 顯 (夏) 之金玉、田邑，舍(予) [17]之吉言[18]。”乃至(致)衆于白(亳) 守 (中) 邑[19]。

惟尹既及湯咸有一德。尹念天之敗西邑夏，曰：“夏自幻其有民，亦惟厥衆。非民無與守邑，厥辟作悞于民，民復之，用離心，我翦滅夏。今后曷不監?” 摯告湯曰：“我克協我友，今惟民，遠邦歸志。”湯曰：“於乎! 吾何作于民，俾我衆勿違朕言?” 摯曰：“后其賚之其有夏之金玉、田邑，予之吉言。”乃致衆于亳中邑。

【주석】

[1] 整理者(2010): 既是 ‘이미(已)’로 풀이된다.

[2] 黃懷信(2011): 及은 ~와 더불어(與)의 뜻이다.

[3] 沈培(2011): “惟尹既及湯咸有一德”은 伊尹이 이미 湯과 더불어 “같은 덕을 가지고 있음(有一德)”을 말한다. 두 사람이 함께 한 마음이 되었음을 뜻한다.<sup>32)</sup>

[4] 張崇禮(2014): ‘ 慧 ’字는 중간 부분이 從弦’으로 이루어졌으며, ‘幻’으로 풀이된다. 《說文·予部》에 “幻은 서로 속이고 미혹시키다(相詐惑)의 뜻이다. 글자는 予자를 뒤집어 놓은 형태이다. <周書>에 ‘아무도 서로 속이고 미혹시켜 혼란스럽게 하는 일이 없었다(無或譎張爲幻)<sup>33)</sup>’라는 구절이 있다”고 했다. 이 글자는 從心으로 이루어졌으며, 속이고 미혹시키다(詐惑), 혼란시키다(惑亂)의 의미이다.

32) 沈培, 孫飛燕, <試論<尹至>的“至在湯”與<尹誥>的“及湯”>文後評論, 復旦大學出土文獻與古文字研究中心網, 2011.01.11.

33) 《書·周書·無逸》에는 “民無或胥譎張爲幻”이라고 되어 있다.

[5]張崇禮(2014): “夏自幻其有民, 亦惟厥衆”의 의미는 夏主人 桀이 스스로 그의 백성과 민중을 속이고 미혹시켰다.

[6]整理者(2010): “非民亡與守冑”은 《國語·周語上》에서 <夏書>를 인용하여 “백성이 임금을 받들지 않으면 누구를 받들겠으며, 임금은 백성들이 아니면 누가 나라를 지켜 주겠소.(衆非元后何戴? 后非衆無與守邦)”라고 한 구절을 참조하라. 현재 孔傳本<咸有一德>에 “임금은 백성이 없으면 부릴 수가 없고, 백성은 임금이 없으면 섬길 수가 없는 법이니(后非民罔使; 民非后罔事)”라는 구절이 있는데 함의가 유사하다.

[7]黃懷信(2011): 作은 만들다(造)의 뜻이다. 《尚書·康誥》에 “원망 받게 하지 말고 바르지 않은 꾀와 바르지 않은 법을 쓰지 말고(無作怨, 勿用非謀非彝)”라고 했다.

[8]張崇禮(2014)“厥辟作悃於民(군주가 백성들에게 분노와 원망을 사)”은 위에 나오는 “夏自幻其有民(夏는 스스로 그 백성을 미혹시켰다)”을 말한다. 《說文》心部에 “悃은 분노하다(忿)의 뜻”이라고 했다. 夏나라 桀은 민중을 미혹시켰고 자연히 민중들에게 분노와 원망을 샀다. 그래서 민중들이 그에게 보복했고 그리하여 군주와 백성들은 서로 마음이 이반하였다. 離心은 서로 마음이 같지 않음을 말한다. 夏나라는 上下가 서로 마음이 갈리고 德이 흩어져 商나라가 夏나라를 쳐서 멸하였다.

[9]整理者(2010): 復은 《左傳·昭公六年》注에 “갸다(報)의 뜻”이라고 했다.

[10]張崇禮(2011): “厥辟作悃於民, 民復之用離心, 我翦滅夏” 구절은 마땅히 “厥辟作悃於民, 民復之, 用離心, 我翦滅夏”로 끊어 읽어야 한다. 군주가 백성들에게 분노와 원망을 사 백성들이 그에게 보복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군주와 백성은 서로 마음이 떠나게 되었고, 이에 우리 商나라가 夏나라를 멸망시켰다. 여기서 ‘用’은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로 ‘그래서, 따라서’의 의미로 쓰였다.<sup>34)</sup>

34) 復旦大學讀書會, <清華簡<尹至>、<尹誥>研讀札記> 文後評論, 2011.01.08.

[11]黃懷信(2011): 監은 '鑒'과 같다. 《尚書·說命下》에 “선왕이 이루신 법을 거울삼아(監于先王成憲)”라고 했고, 《尚書·酒誥》에 “사람은 물을 거울 삼지 말고 마땅히 백성을 거울삼아야 한다.”고 하였다. 지금 殷나라가 天命을 실추하였으니, 내 크게 거울삼아 이때를 어루만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人無于水監, 當于民監. 今惟殷墜厥命, 我其可不大大監撫于時)”라고 했는데, 모두 '鑒'의 뜻이다.

[12]整理者(2010): 協은 《說文》에 “민중이 서로 화합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書·湯誓》에 “(그래서) 백성들은 매우 태만하고 협력하지 않는다(有衆率怠弗協)”고 했다.

[13]張崇禮(2011): “我克協我友. 今惟民遠邦歸志” 구절은 마땅히 “我克協我友, 今惟民, 遠邦歸志”라고 끊어 읽어야 한다. “우리를 따르는 제후들과 화합해 잘 지내고 있으니 이제는 백성들과 잘 화합을 해야만 멀리 있는 제후들도 와서 귀의하고자 할 것이고, (천하가 태평해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음 문장에서 湯이 “아! 내가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민중들이 나의 말을 어기지 않을까? (嗚呼! 吾何作于民, 俾我衆勿違朕言?)”라고 말한 것이다.<sup>35)</sup>

[14]廖名春(2011): ‘ 復 ’는 ‘作’의 通假이다.

[15]廖名春(2011): “吾何作于民” 구절은 “吾作何于民”으로 봐야 한다. ‘作’의 목적어인 의문대명사 ‘何’가 前置된 문장이다. 商湯이 말한 것으로 “‘民’에게 나는 어떻게 해야만 그들이 비로소 ‘나의 말을 어기지 않고 잘 들을까(勿違朕言)’”라는 뜻이다.

[16]整理者(2010): 𡗗 는 ‘賚’의 通假이다. <湯誓>에 “내가 여러분에게 큰 상을 줄 것이오(予其大賚汝)”라는 구절이 있다. 廖名春(2011): ‘賚’는 ‘하사하다(賜)’, ‘주다(與)’로 풀이해야 한다. 《爾雅·釋詁上》에 “賚는 하사하다(賜)의 뜻”이라고 했다. 《集韻·哈韻》에 “賚는 주다(與)의 뜻”이라고 했다. 《書·湯誓》에 “내가 여러분에게 큰 상을 줄 것이오(予其大賚汝)”라는 구절이 있는데, 孔傳에 “賚는 주다(與)의 뜻”이라고 했다.

35) 復旦大學讀書會, <清華簡<尹至>、<尹誥>研讀札記> 文後評論, 2011.01.08.

[17] 廖名春(2011): 여기의 ‘舍’字는 ‘予’의 通假로, 주다(給予)의 뜻이다.

[18] 陳劍(2011): <尹誥>簡4의 ‘日’字는 확대해서 자세히 보면 실은 ‘田’字이다. 伊尹의 말한 “后其李(賚)之其有夏之金玉田邑, 舍之吉言”의 내용은 의미가 분명하다. “李(賚)之”와 ‘舍之’의 두 ‘之’字는 모두 商民을 가리킨다. 伊尹이 商湯에게 夏人들의 거주지에서 얻은 財物과 田地, 城邑을 商의 민중들에게 하사하고 또 좋은 말로 商의 민중들에게 告誡할 것을 권하고 있다. 이는 물질적인 하사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위안도 아울러 중시하며, 이러한 수단을 통해 “민중들이 나의 말을 어기지 않기(俾我衆勿違朕言)”를 바란다.<sup>36)</sup>

[19] 張崇禮(2014): “乃致衆於亳中邑”은 즉 “乃致衆於亳邑中”이다. ‘致衆’을 단순히 ‘聚衆’으로 풀이할 수 없다. ‘致’는 불러 모오다(招集), 모오다(聚集)로 풀이하기 보다는 ‘불러들이다(招引)’, ‘끌어들이다(引來)’의 뜻으로 풀이해야 한다. <易·需>에 “九三是 진흙에서 기다리니 도적을 불러들이다(九三, 需於泥, 致寇至)”라고 했는데, 王弼 注에 “도적을 부르고 적을 끌어들인다(招寇而致敵也)”라고 했다. <漢書·公孫弘傳>에 “이로움을 끌어들이고 해를 제거하며 兼愛無私한 것을 仁이라 한다.(致利除害, 兼愛無私, 謂之仁)”라고 했는데, 顏師古 注에 “致는 끌어당겨 이르게 하다(引而至)를 뜻한다.”고 했다.

### 【간문 번역】

伊尹이 湯과 이미 同心同德이 되었다. 그리고 그는 하늘이 서쪽의 夏를 멸망하도록 한 이유를 생각해보고는 말했다. “夏나라는 스스로 그의 민중들을 미혹시키고 어지럽혔다. 백성이 없으면 곧 나라를 지킬 이도 없건만. 군주는 백성들에게 분노와 원망을 샀고 결국 백성들이 그에게 보복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군주와 백성이 마음이 갈라지고 덕이 흩어져 우리가 夏나라를 쳐서 멸망시켰다. 오늘날 군주께서는 어찌 이를 거울삼지 않는가?” 尹摯가 商湯에게 고하여 말하였다. “우리를 따르는 제후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있으니 이제는 백성들과 화합만 잘 한다면 멀리 있는 제후들도 스스로 와서 귀의하고자 할 것임니

36) 復旦大學讀書會, <清華簡<尹至>、<尹誥>研讀札記> 文後評論, 2011.01.09.

다.” 商湯이 말했다. “아! 내가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민중들이 나의 말을 어기지 않고 잘 따를까?” 尹摯가 말했다. “君主께서는 마땅히 夏의 黃金과 珠玉 등 진귀한 보물, 土地, 城邑을 그들에게 하사하시고 아울러 좋은 말로 보듬으시면 될 것입니다.” (商湯이 伊尹의 말을 따랐고) 그리하여 민중들을 도성 扈으로 끌어들이 수 있었다.

## 5. 맺음말

이상에서 淸華簡 <尹至>, <尹誥> 두 문헌의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고 이들 각 편을 주해하였다. 이들 두 문헌에 대해서는 이들이 2010년 발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에 나오는 문자와 《禮記·緇衣》 중 인용된 <尹誥> 구절에 대해 국내에서 최남규(2012a, 2012b, 2015)의 선도적인 연구가 있었고, 더불어 성시훈(2012, 2016)에서도 淸華簡 <尹誥>, <尹至>와 《尙書·咸有一德》을 비교하고 사상적 의미에 대해 고찰하는 과정에서 이들 문헌을 비롯해 《禮記·緇衣》 중 인용된 <尹誥> 구절에 대해 자세히 논하였다. 본고는 작성과정에서 이들 논문들을 참고하였으나 본고가 주해 논문인 만큼 이들 논문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따로 논하지는 않았다. <尹誥>, <尹至> 원문의 해석 등에 있어 일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출토문헌학계의 그 동안의 추가적인 연구 성과를 반영한 부분도 있고, 부분적으로 필자들의 견해를 반영한 부분도 있다. 한편 본고는 주해 논문인 만큼 <尹至>, <尹誥>를 내용면에서 살펴보고 주해하는데 치중했고, 淸華簡 정리자들이 淸華簡 <尹誥>를 古文《尙書》<尹誥> 또는 <含有一德>의 진본으로 추정된 것과 관련된 논의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언급을 피했다.

<尹至>, <尹誥>를 비롯해 淸華簡에 포함된 《尙書》류 문헌들을 살펴보면 볼수록 《尙書》의 전승이나 流轉이 간단치 않음을 새삼 느끼게 된다. 이런

출토문헌들의 발굴은 기존 《尙書》류 문헌의 이해에 새로운 실마리를 던져주기도 하지만 새로운 논란과 연구 과제를 안기기도 한다. 그럼에도 이런 류의 문헌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쌓이다 보면 《尙書》를 비롯한 古典籍에 대한 이해도 그만큼 폭넓고 깊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아무쪼록 본고가 기존의 국내외 연구에 더해 <尹至>, <尹誥>를 이해하고 《尙書》류 문헌을 연구함에 있어 관련 분야 연구자들에게 작으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參考文獻〉

- 陳劍, <說“慎”>, 《甲骨文考釋論集》, 線裝書局, 2007.
- 馮勝君, <清華簡<尹至>“茲乃柔大紘”解>, 《出土文獻研究》第十三輯, 中西書局, 2014.
- 復旦大學出土文獻與古文字研究中心研究生讀書會, <清華簡<尹至>、<尹誥>研讀札記(附:<尹至>、<尹誥>、<程寤>釋文)>, 復旦大學出土文獻與古文字研究中心網站, 2011.01.05.(又見彭林主編《中國經學》第八輯 pp.23-30, <清華簡<尹至>、<尹誥>、<程寤>研讀札記>,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11).
- 復旦大學出土文獻與古文字研究中心研究生讀書會, <清華簡<尹至>、<尹誥>研讀札記(附:<尹至>、<尹誥>、<程寤>釋文)>, 復旦大學出土文獻與古文字研究中心網站(2011.01.05.)文後的評論.
- 黃懷信, <清華簡<尹至>補釋>, 武漢大學簡帛研究中心網站, 2011.03.17.
- 黃懷信, <由清華簡<尹誥>看《古文尙書·咸有一德》>, 武漢大學簡帛網, 2011.03.25.
- 董廣輝·付贊, <清華簡尹誥獻疑>, 《湖南大學學報》, 2014:3.
- 李學勤 主編, 《清華大學藏戰國竹簡》(壹), 中西書局, 2010年.
- 李學勤, <清華簡與《尙書》《逸周書》的研究>, 《史學史研究》, 2011:2期.
- 廖名春, <清華簡與《尙書》研究>, 《文史哲》, 2010:6期.
- 廖名春, <清華簡<尹誥>篇補釋>, 孔子2000網“清華大學簡帛研究”專欄, 2011.01.05.
- 廖名春, 《孔子真精神: 論語疑難問題解讀》, 孔學堂書局, 2014.
- 沈建華, <清華楚簡<尹至>釋文試解>, 《中國史研究》, 2011:1期.
- 宋華強, <清華簡校讀散札>, 武漢大學簡帛研究中心網站, 2011.01.10.
- 夏大兆·黃德寬, <關於清華簡<尹至><尹誥>的形和性質>, 《文史》, 2014: 3輯.

- 揚善群, <清華簡<尹誥>引發古文《尚書》眞僞之爭>, 《學習與探索》, 2012:9.
- 張兵, <清華簡<尹誥>與<咸有一德>相關文獻梳理及其關係考論>, 《濟南大學學報》, 2016:1.
- 張崇禮, <清華簡<尹誥>考釋>, 復旦大學出土文獻與古文字研究中心網, 2014.12.17.
- 張富海, <清華簡<尹至>字詞補釋二則>, 《中國文字學報》 第5輯, 2014.
- 朱鳳瀚, <再讀殷墟卜辭中的“衆”>, 《古文字與古代史》 第2輯 pp.1-37, 台灣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2009.12.
- 子居, <清華簡九篇九簡解析>, 孔子2000網‘清華大學簡帛研究’專欄, 2010.06.30.
- 가이즈카 시게키 외 지음, 배진영 외 옮김, 《중국의 역사(선진시대)》, 혜안, 2011.
- 곽성문 옮김, 《춘추공양전》, 인간사랑, 2015.
- 김원중 역, 《사기열전》, 민음사, 2007.
- 김학주 역저, 《새로 옮긴 書經》, 명문당, 2012.
- 김학주 역저, 《새로 옮긴 詩經》, 명문당, 2010.
- 남기현 옮김, 《춘추공양전》, 자유문고, 2005.
- 성시훈(2012), <清華簡「尹誥」의 내용과 사상적 의미에 관한 고찰>, 《유교문화연구》 20.
- 성시훈, 《先秦 시기 『尚書』의 사상적 특징에 대한 연구: 출토문헌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박사논문, 2016.
- 신동준 역, 《국어》, 인간사랑, 2017.
- 심의용 옮김, 《주역》, 글항아리, 2015.
- 양계초·풍우란 외 지음, 김홍경 편역, 《음양오행설의 연구》, 신지서원, 1993.
- 이상옥 역, 《禮記》(상,중,하), 명문당, 2003.
- 이연주, 張崇禮(2014), <清華簡「傳說之命」주해>, 《중국학논총》 46집.
- 장세후 역, 《춘추左傳》, 을유문화사, 2012.
- 장원태, 《전국시대 인성론의 형성과 전개: 유가, 묵가, 법가를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논문, 2005.
- 정하현 역, 《여씨춘추》, 소명출판사, 2011.
- 지재희·이준영 역, 《周禮》, 자유문고, 2002.
- 최남규(2012a), <《清華大學藏戰國竹簡》의 <尹誥>와 문자 연구>, 《중국어문학》 60.
- 최남규(2012b), <《清華大學藏戰國竹簡》의 <尹至>의 문자 연구>, 《중국인문과

학》 51.

최남규(2015), <《禮記·緇衣》 중 인용된 <尹誥>구절에 대한 고찰>, 《중국인문과학》 59.

< Abstract >

Translation and Annotation of <Yin Zhi(尹至)>, <Yin Gao(尹誥)>  
in Tsinghua Bamboo Slips

Lee, Yeon-ju · Zhang, Chong-li

“Yinzhi(尹至)” and “Yingao(尹誥)” are two of the documents contained in the 1st release of Tsinghua Bamboo Slips(清華簡) and published in 2010. Tsinghua Bamboo Slips(清華簡) is a collection of Chinese texts dating to the Warring States period, acquired in 2008 by Tsinghua University. “Yinzhi(尹至)” and “Yingao(尹誥)” are closely connected to each other and the background of the stories is the end of Xia(夏) dynasty and the beginning of Shang Tang(商湯)’s reign. They are both comprised of dialogues between Shang Tang(商湯) and Yiyin(伊尹). In “Yingao(尹誥)”, two phrases cited in “Liji(禮記) Ziyi(緇衣)” from Old Text Shangshu(古文尚書) “Yingao(尹誥)”, which are now lost and not handed down, comes out at the start of the document. Old Text Shangshu(古文尚書) “Yingao(尹誥)” were regarded as the same document as Old Text Shangshu(古文尚書) “Common Possession of Pure Virtue(咸有一德)” by ancient commentator Zheng Xuan(鄭玄). This raised speculation that Tsinghua Bamboo Slips “Yingao(尹誥)” may be the authentic piece of Old Text Shangshu(古文尚書) “Yingao(尹誥)” or “Common Possession of Pure Virtue(咸有一德)”. In this article, we reviewed “Yinzhi(尹至)” and “Yingao(尹誥)” and annotated and interpreted them into Korean.

Key words: Yinzhi(尹至), Yingao(尹誥), Xianyouyide(咸有一德), Yiyin(伊尹), Tang(湯), Ziyi(緇衣) chapter of Liji(禮記), Tsinghua Bamboo Slips (淸華簡)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7. 11. 15.	2017. 11. 28.	2017. 11. 29.	2017. 12. 18.	2017. 12. 31

